

작업치료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

김경미**, 유은영***, 강대혁****, 이미자*****, 이재신*****, 이택영*****, 이경식*****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삼육재활병원 재활치료팀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삼성서울병원 작업치료실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 교육기관 증가에 따른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의 대상은 작업치료(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26명과 3, 4학년 재학 중인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에서 수립된 의견을 기초로 2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분석은 기술통계량인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각 문항별 인식정도를 알아보았다.

결과 : 인증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교수는 88.5%, 학생은 90% 찬성하였고,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평가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교수는 84.6%, 학생은 94.7%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여부도 교수는 73.1%, 학생은 77.6%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준화된 교과과정 수립 필요여부는 교수는 100%, 학생은 99.4%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증제 도입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상위 5개 항목으로 교수는 전공관련 교수수, 교과목의 학습내용, 교수의 임상경험 유무, 교과목 종류, 평가도구의 종류 순이었고, 학생은 교과목의 학습내용, 교수의 임상경험 유무, 교과목 종류, 전공관련교수수, 실습도구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결과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들 모두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한국 작업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제도의 표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교과과정, 교과목, 평가인증

*본 논문은 한국 작업치료 인증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 유은영(splash@dragon.yonsei.ac.kr)

|| 접수일: 2004.2.23

|| 게재승인일: 2004.5.20

I. 서론

대학은 경영 목표 및 전략을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타당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 설립과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은 대학간의 질적 수준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평가 및 대학평가인증제가 개발, 시작되었다. 작업치료교육 환경도 최근 2-3년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2000년 이전에 2개의 교육기관에서 현재 26개(김경미, 2004)의 교육기관으로 급진적인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과 교육의 질적 수준격차가 증가하며, 실습교육기관의 부족, 교수요원의 부족 현상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의 평가인증(accreditation)은 비 정부적 조직에서 미리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개별대학과 대학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정 여부를 결정, 공표하는 절차(Ratcliff, 1996)이다. 미국 작업치료교육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COTE, 1999)는 작업치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 교육기준 및 지침을 제공하며, 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업치료 임상에 필요한 작업치료사를 준비시키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WFOT(2002)는 작업치료 교육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작업치료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며,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을 인가 또는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지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작업치료교육의 질적인 발전 및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한다(WFOT, 2003). 작업치료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철학 및 목적, 교과과정 내용 및 순서, 교육 방법, 교육자, 교육자원 및 협력 교육기관, 그리고 임상실습교육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각 요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WFOT, 2003).

우리나라에서도 작업치료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작업치료 교육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지를 위하여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가 발족되었다(김경미, 2003a). 작업치료 교육프로그램의 최소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과제로 작업치료 교육과정에 관한 실태 조사, 실습교육기관의 실태조사, 교수요원의 실태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미 등(2003b)은 임상의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교육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작업치료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준 개발 및 추진은 작업치료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기관 및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 교육기관 증가에 따른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들로 각각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2003년 교수협의회에 참석한 교수들 중에 설문에 응답한 2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생들은 2003년 현재 국내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 학년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응답한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한국작업치료 교육인증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들은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문항, 교육과정

표 1. 교수의 일반적 특징

(N=26)

변수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나이	26~30세	1	3.8
	31~35세	8	30.8
	36~40세	9	34.6
	41~45세	7	27.0
	46~50세	1	3.8
성별	남	11	42.3
	여	15	57.7
교수경력 (개월)	1년 미만	3	11.5
	1~2년 미만	3	11.5
	2~3년 미만	5	19.2
	3~4년 미만	5	19.2
	4~5년 미만	5	19.2
	5~6년 미만	3	11.5
	6년 이상	2	7.7
최종학위	석사	17	65.4
	박사	9	34.6
제직위치	전임강사	19	73.1
	조교수	6	23.1
	부교수	1	3.8
학교학제	대학(3년제)	17	65.4
	대학교(4년제)	9	34.6
학교지역	경기도	5	19.2
	충청도	5	19.2
	강원도	1	3.8
	경상도	8	30.8
	전라도	6	23.1
	제주도	1	3.8
담당주요 과목 (중복선택 가능)	성인신체	13	50
	성인정신	6	23.1
	소아신체	8	30.8
	소아정신	7	26.9
	직업훈련	3	11.5
	기초의학	11	42.3
	기초과목	16	61.5

및 교육기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항,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항, 임상실습에 대한의견에 대한 문항, 인증평가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교육기관 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량인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작업치료학과 교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응답한 교수들의 평균 연령은 38.1세였고 응답자의 93.4%가 31~45세에 분포하였다. 평균 교수경력 4.5년이었고, 응답자의 73.1% (19명)가 직위가 전임강사였다. 담당과목으로는 기초과목 및 성인신체 장애에 대한 과목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응답한 작업치료 학생의 평균 나이는 23.2세였고, 여학생이 148명(87.1%), 남학생이 22명(12.9%)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학년은 3학년이 전체의 62.9%, 학제는 4년제 재학 중인 학생이 전체의 69.4%였다. 대학위치는 충청(48.2%), 경상(20.6%), 강원(16.5%), 경기(14.7%) 순으로 많았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작업치료 분야는 성인신체장애(49.4%)와 소아정신장애(49.4%) 분야였다.

표 2.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N=170명)

변수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나이	20세 이하	2	1.2
	21~25세	151	88.8
	26~30세	12	7.1
	31세 이상	5	2.9
성별	남	22	12.9
	여	148	87.1
학제	3년제	52	30.6
	4년제	118	69.4
학년	3학년	107	62.9
	4학년	63	37.1
대학위치	경기도	25	14.7
	충청도	82	48.2
	강원도	28	16.5
	경상도	35	20.6
관심분야 (중복응답)	성인신체장애	84	49.4
	소아정신장애	84	49.4
	소아신체장애	75	44.1
	성인정신장애	56	32.9

2. 교육기관 증가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교육증가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교수는 88.5%였고, 학생은 64.1%로 나타나 교수들이 교육기관 증가에 대하여 높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각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각 학교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교수는

표 3. 교육기관 증가에 대한 의견

[N=26(교수), 170(학생)]

변수	구분	교수(%)	학생(명)
교육기관증가에 대한 의견	긍정적	2(7.7)	38(22.4)
	부정적	23(88.5)	109(64.1)
	모르겠음	1(3.8)	23(13.5)
각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	같음	2(7.7)	3(1.8)
	다름	19(73.1)	141(82.9)
	모르겠음	5(19.2)	26(15.3)
각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신뢰도	신뢰함	5(19.2)	19(11.2)
	신뢰안함	16(61.5)	100(58.8)
	모르겠음	5(19.2)	51(30)

73.1%, 학생은 82.9%였다. 각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신뢰여부에 대한 문항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교수는 전체의 61.5%였고, 학생은 58.8%였다(표 3).

3. 교육과정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교육과정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교수는 전체의 88.5%, 학생은 90.0%로 나타났다. 인증제도가 완성될 경우 신뢰하겠다는 의견이 교수는 73.1%, 학생은 77.6% 나타났다. 교수의 경우 인증제도가 실시 될 경우 평가를 의뢰하겠다는 의견이 84.6%였고, 학생의 경우 소속대상이 인증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94.7%나타났다. 표준화된 교과과정 수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교수는 100%, 학생은 99.4%가 답하였다. 인증평가 후 긍정적인 결과는 교수의 경우 학교의 대외홍보자료로, 학생은 취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표 4).

표 4.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N=26(교수), 170(학생수)]

변수	구분	교수 수(%)	학생수(%)
인증제도 필요성	필요함	23(88.5)	153(90.0)
	필요없음	0(0)	4(2.4)
	모르겠음	3(11.5)	13(7.6)
인증평가에 대한 신뢰	신뢰함	19(73.1)	132
	신뢰안함	0(0)	7
	모르겠음	7(26.9)	31
평가의뢰	희망함	22(84.6)	161(94.7)
	원하지 않음	0(0)	2(1.2)
	모르겠음	4(15.4)	7(4.1)
교과과정수립	필요함	26(100)	169(99.4)
	필요없음	0(0)	0(0)
	모르겠음	0(0)	1(0.6)
인증평가 사용 방법	대외적 홍보자료	24(92.7)	
	기타	2(7.7)	
인증평가 합격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예		146(85.9)
	아니오		9(5.3)
	모르겠음		15(8.8)

4. 임상실습에 관한 의견

임상실습에 관한 의견으로 교수는 전체의 73.1%가 임상실습 지도경험이 있었고, 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84.1%였다. 임상실습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수는 100%, 학생은 99.4%가 동의하였다.

각 대학에서 임상실습을 보내는 기간은 8주, 16주, 24주, 12주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임상실습 기간은 16주, 24주, 8주, 12주, 4주 순이었다. 현재 대학에서 의뢰하고 있는 실습기관 수는 10-15기관(34.6%), 5-10기관(19.2%), 20개 기관 이상(19.2%), 15-20기관(19.2%), 5개 미만(3.8%)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의뢰하는 기관 종류로는 대학병원(92.3%), 종합병원(88.5%), 복지관(65.4%), 재활원(42.3%), 준종합병원(32.1%), 특수학교(23.1%), 관련기관(11.5%), 개인병원(7.7%) 순으로 나타났고,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표 5).

학생의 경우 희망하는 실습기관은 종합병원(28.8%), 대학병원(27.1%), 재활원(11.8%), 작업치료관련단체(8.2%), 특수학교(5.9%), 준종합병원(2.4%), 복지관(2.4%), 개인병원(0.6%) 순으로 나타났고, 중복응답을 허용하지 않았다. 희망하는 임상실습 지역으로는 서울(73.5%)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이 경기(12.4%)지역이었다(표 6).

임상실습이 국가고시 필수조건인지에 대한 응답

표 5. 교수의 임상실습에 관한 의견 (N=26)

변수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임상실습 필요성	필요함	26	100
실습지도 경험	경험있음	19	73.1
	경험없음	7	26.9
현재 실습기간	8주	8	30.8
	12주	5	19.2
	16주	7	26.9
	24주	6	23.1
실습의뢰 기관수	5개미만	1	3.8
	5~10개	5	19.2
	10~15개	9	34.6
	15~20개	4	15.4
	20개 기관이상	5	19.2
실습기관종류 (중복선택 가능)	대학병원	24	92.3
	종합병원	23	88.5
	준종합	6	23.1
	재활원	11	42.3
	복지관	17	65.4
	개인병원	2	7.7
	특수학교	6	23.1
국가고시 필수조건	관련기관 단체	3	11.5
	필수조건임	21	80.8
	필수조건 아님	5	19.2

으로 교수는 80.8%, 학생은 87.6%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5. 인증평가 제도에서 다루어야 할 평가내용

인증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인증평가에 포함되어 할 내용으로 제시한 20개 항목 중에 교수의 경우 중요도 '상'에 표시한 상위 순위 10개 항목은 전공관련 교수 수(61.5%), 교과과목의 학습내용(46.2%), 교수의 임상 경험 유무(46.2%), 교과목 종류(46.2%), 평가도구 종류(38.5%), 세계작업치료연맹 최소기준 채택여부(34.6%), 임상실습기관(34.6%), 학교실습도구(30.8%), 임상실습 지도 선생님의 적합성(30.8%), 임상실습내용(30.8%) 순이었고, 이하 항목들은 30% 이하의 백분율을 보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수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중요도 '상'에 표시한 항목의 백분율이 가장 높은 항목 10개의 항목에는 교과과목의 학습내용(75.3%), 교수의 임상경험 유무(68.8%), 교과과목(68.2%), 전공관련 교수수(63.5%), 학교실습도구(60.0%), 임상실습 지도 선생님의 적합성(58.8%), 임상실습 내용(57.1%), 세계작업치료연맹 최소기준 채택여부(52.9%), 평가도구 종류(50.0%), 도서관 전 공서적 보유수(45.3%)개 순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 학과 신설의 급증에 따른 작업치료의 학문적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된 연구로 작업치료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인 대상인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기관 인증제에 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작업치료학과에 소속된 교수 및 학생들 모두 급격하게 신설되는 대학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크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작업치료 임상가들의 설문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작업치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인력들이 급증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미 등, 2003).

표 6.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의견

변수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임상실습의 필요성	필요함	169	99.4
	필요 없음	0	0
	모르겠음	1	0.6
실습에 대한 경험	경험 있음	143	84.1
	경험 없음	24	14.1
	무응답	3	1.8
임상실습 희망기간	4주	6	3.5
	8주	32	18.8
	12주	31	18.2
	16주	59	34.7
	24주	42	24.7
임상실습 희망기관	대학병원	46	27.1
	종합병원	49	28.8
	준종합병원	4	2.4
	재활원	20	11.8
	복지관	4	2.4
	개인병원	1	0.6
	특수학교	10	5.9
	작업치료관련 단체	14	8.2
	기타	2	1.2
	무응답	20	11.8
임상실습 희망지역	서울	125	73.5
	경기도	21	12.4
	충청도	14	8.2
	강원도	3	1.8
	경상도	3	1.8
	전라도	1	0.6
	제주도	0	0
	무응답	3	1.8
국가고시 필수조건	필수임	149	87.6
	필수가 아님	11	6.5
	모르겠음	9	5.3
	무응답	1	0.6

표 7. 인증평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N=26(교수), 170(학생)]

내용	중요도	교수 수(%)	학생수(%)
전공 관련 교수 수	상	16(61.5)	108(63.5)
	중	6(23.1)	42(24.7)
	하	0(0)	7(4.1)
	무응답	4(15.4)	13(7.6)
교과목의 학습내용	상	12(46.2)	128(75.3)
	중	8(30.8)	28(16.5)
	하	0(0)	2(1.2)
	무응답	6(23)	12(7.1)
교수 임상경험 유무	상	12(46.2)	117(68.8)
	중	9(34.6)	36(21.2)
	하	0(0)	4(2.4)
	무응답	5(19.2)	13(7.6)
교과목 종류	상	11(42.3)	116(68.2)
	중	7(26.9)	33(19.4)
	하	1(3.8)	3(1.8)
	무응답	7(26.9)	18(10.6)
평가도구 종류	상	10(38.5)	85(50.0)
	중	7(26.9)	64(37.6)
	하	2(7.7)	5(2.9)
	무응답	7(26.9)	16(9.4)
세계작업치료연맹 최소기준 채택여부	상	9(34.6)	90(52.9)
	중	7(26.9)	49(28.8)
	하	3(11.5)	10(6.7)
	무응답	7(26.9)	21(12.4)
임상실습기관	상	9(34.6)	63(37.1)
	중	8(30.8)	78(45.9)
	하	2(7.7)	9(5.3)
	무응답	7(26.9)	20(11.8)

표 7. 인증평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계속)
[N=26(교수), 170(학생)]

내용	중요도	교수 수(%)	학생수(%)
학교실습도구	상	8(30.8)	102(60.0)
	중	9(34.6)	50(29.4)
	하	2(7.7)	3(1.8)
	무응답	7(26.9)	15(8.8)
실습지도선생님의 적합성	상	8(30.8)	100(58.8)
	중	11(42.3)	46(27.1)
	하	0(0)	4(2.4)
	무응답	7(25.9)	20(11.8)
임상실습내용	상	8(30.8)	97(57.1)
	중	9(34.6)	50(29.4)
	하	2(7.7)	6(3.5)
	무응답	7(26.9)	17(10.0)
임상실습 시간	상	7(26.9)	75(44.1)
	중	10(38.5)	67(39.4)
	하	3(11.5)	11(6.5)
	무응답	6(23.1)	17(10.0)
교수의 연구업적	상	7(26.9)	69(40.6)
	중	9(34.6)	74(43.5)
	하	1(3.8)	11(6.5)
	무응답	9(34.6)	16(9.4)
교수의 학위	상	6(23.1)	61(35.9)
	중	7(26.9)	85(50.0)
	하	4(15.4)	7(4.1)
	무응답	2(7.7)	17(10.0)
강의실 규모	상	4(15.4)	28(16.5)
	중	7(26.9)	72(42.4)
	하	6(23.1)	45(26.5)
	무응답	9(34.6)	25(14.7)

표 7. 인증평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계속)
[N=26(교수), 170(학생)]

내용	중요도	교수 수(%)	학생수(%)
실습비 책정규모	상	4(15.4)	51(30.0)
	중	7(26.9)	67(39.4)
	하	6(23.1)	28(16.5)
	무응답	9(34.6)	24(14.1)
학생 봉사활동	상	4(15.4)	31(18.2)
	중	8(30.8)	85(50.0)
	하	4(15.4)	31(18.2)
	무응답	10(38.5)	23(13.5)
치료도구	상	4(15.4)	72(42.4)
	중	7(26.9)	73(42.9)
	하	5(19.2)	8(5.2)
	무응답	10(38.5)	17(10.0)
강의 기자재	상	4(15.4)	50(29.4)
	중	5(19.2)	75(44.1)
	하	7(26.9)	22(12.9)
	무응답	10(38.5)	23(13.5)
국가고시 합격률	상	3(11.5)	48(28.2)
	중	7(26.9)	80(47.1)
	하	6(23.1)	24(14.1)
	무응답	10(38.5)	18(10.6)
교내치료실 여부	상	3(11.5)	61(35.9)
	중	9(34.6)	65(38.2)
	하	5(19.2)	24(14.1)
	무응답	9(34.6)	20(11.8)
장학금	상	3(11.5)	61(35.9)
	중	7(26.9)	50(29.4)
	하	7(26.9)	35(20.6)
	무응답	9(34.6)	24(14.1)

표 7. 인증평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계속)
[N=26(교수), 170(학생)]

내용	중요도	교수 수(%)	학생수(%)
장학금	상	3(11.5)	61(35.9)
	중	7(26.9)	50(29.4)
	하	7(26.9)	35(20.6)
	무응답	9(34.6)	24(14.1)
학생학술활동	상	2(7.7)	45(26.5)
	중	8(30.8)	76(44.7)
	하	7(26.9)	30(17.6)
	무응답	9(34.6)	19(11.2)
졸업생의 취업률	상	2(7.7)	72(42.4)
	중	8(30.8)	55(32.4)
	하	6(23.1)	25(14.7)
	무응답	10(38.5)	18(10.6)
도서관 전공서적보유수	상	1(3.8)	77(45.3)
	중	12(46.2)	55(32.4)
	하	5(19.2)	20(11.8)
	무응답	8(30.7)	18(10.6)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분석한 결과 교수의 평균 연령은 38세, 교육경력 4.5년으로 나타났다. 담당하는 주요 과목은 신체장애로 기초과목이 많았다. 학생의 경우 3학년이 전체의 62.9%였고, 관심있는 분야로는 성인 신체장애와 소아의 정신장애로 나타났다. 소아의 정신장애는 최근 감각통합치료 및 발달장애센터의 활성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작업치료 교육기관 증가에 대한 작업치료 교수의 의견은 88.5%, 학생은 64.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73.1%, 82.9%로 나타났다. 이 결과 교육기관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집단은 교

수, 임상가(김경미 등, 2003), 학생 순임을 할 수 있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아 교수는 19.2%, 학생은 11.2% 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작업치료의 질적 수준 저하 및 자질 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사료된다. 표준화된 교과과정의 필요성에는 교수는 100%, 학생은 99.4% 동의 한다는 의견을 내어 기존 대학 및 신설되는 대학들을 위한 표준화된 교과과정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각 교육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교수는 88.5%, 학생은 90.0%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냐는 항목에는 각각 73.1%, 77.6%로 높은 신뢰성을 표명하였고, 임상가의 경우도 77.4%(김경미 등, 2003)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상평가 제도가 마련된 후 평가를 의뢰하겠느냐는 항목에는 교수가 84.6%, 학생은 94.7%가 희망한다는 응답을 하여, 각 소속된 대학이 표준화된 교과과정 및 조건을 갖추는데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교육 과정 중 임상실습에 관한 필요성은 교수는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학생은 99.4%가 동의하였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임상실습 기간으로 8주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학생이 희망하는 임상실습기관은 16주가 가장 많았다. 임상 작업치료사의 경우도 임상실습기간을 12-16주를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어 학생들의 의견과 일치하였다(김경미 등, 2003). 그러나 각 대학에서는 현실적으로 임상 및 학생이 원하는 실습기간과는 거리가 있는 실습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실습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임상실습기관도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선호도와는 달리 급증하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소화할 수 있는 양질의 임상기관의 부족은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저하가

예상된다.

인증평가에 포함되어 할 내용으로 제시한 20개 항목 중에 교수의 경우 중요도 '상'에 표시한 상위 10개 항목은 전공관련 교수수(61.5%), 교과과목의 학습내용(46.2%), 교수의 임상경험 유무(46.2%), 교과과목종류(46.2%), 평가도구 종류(38.5%), 세계작업치료연맹 최소기준 채택여부(34.6%), 임상실습기관(34.6%), 학교실습도구(30.8%), 임상실습 지도 선생님의 적합성(30.8%), 임상실습내용(30.8%) 순이었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수와는 일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교과과목의 학습내용(75.3%), 교수의 임상경험 유무(68.8%), 교과과목(68.2%), 전공관련 교수수(63.5%), 학교실습도구(60.0%), 임상실습 지도 선생님의 적합성(58.8%), 임상실습 내용(57.1%), 세계작업치료연맹 최소기준 채택여부(52.9%), 평가도구 종류(50.0%), 도서관 전공서적 보유수(45.3%)개순으로 나타났다. 총 20개의 평가내용을 제시한 결과 순위를 보면 항목별로 순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위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동일하게 양쪽 집단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 및 교수 모두 교수의 자질 및 교육을 위한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함을 할 수 있다. 임상 작업치료사의 경우도 상위 10개 항목 중 교수와는 9개 항목이 일치하며, 학생과도 8개 항목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작업치료 교수, 임상가, 학생 모두 작업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선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인식항목이 동일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앞으로 작업치료의 제도의 마련과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수립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 사업의 일환인 임상가, 교육자, 학생들의 다양한 인증제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는 방안의 하나로 먼저 임상작업치료사에 국한하여 인증제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김경미 등, 2003). 그 후속으로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인

식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대상자는 2003년 교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에 응답한 26명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학생의 경우도 1, 2 학년은 아직 작업치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설문분석에서 제외하고, 현재 재학중인 3, 4학년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위한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표준화된 제도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리라 기대되고, 지속적인 작업치료 인력들간의 교류를 통하여 한 방향으로 작업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 교육기관 증가에 따른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작업치료학과에 소속된 교수 및 학생들 모두 급격하게 신설되는 대학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크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의 우선순위에서 교수와 학생들간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이 결과는 작업치료 임상가들의 설문결과와도 일맥상통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때 작업치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인력들이 급증하는 교육기관에 표준화된 교육 및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 (2004). 한국 작업치료 교육기준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작업치료교수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 대한교수협의회
- 김경미. (2003a).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 *대한작업치료협회신문*, 서울: 대한작업치료사 협회
- 김경미, 이미자, 이재신, 이택영, 강대혁, 이경식, 유은영. (2003b). 작업치료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인식도 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1(2), 125-133.
- 장기연. (2002). 작업치료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제도 연구: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0, 143-152.
- 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COTE) of 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99). *Standards for an accredited educational program for occupational therapis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3(6), 575-582.
- Ratcliff. J., L. (1996). Assessment,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ty in Higher Education*. vol.2.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03). *Guidelines for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Process for Approval of Educational Programmes(first draft)*.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02). *Revised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Abstract

The Survey on Introducing an Accredit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Kim, Kyeong-Mi*, Ph.D., O.T., Yoo, Eun-Young**, Ph.D., O.T., Kang, Dae-Hyuk***, M.S., O.T.R.,

Lee, Mi-Ja****, M.P.A., O.T., Lee, Jae-Shin*****, M.P.H., O.T.

Lee, Teak-Young***, M.P.E., O.T., Lee, Kyoung-Sik*****, M.P.H.,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Therapy, Sam Yook Rehabilitation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u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amsung Medical Cente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y faculty and students toward introducing an accredit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Methods :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6 faculty members and 170 students who were in their 3rd and 4th year of the programs.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reviewed by the Accreditation Board for the Education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and was composed of 20 items which included both closed-end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data were analyzed employ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 88.5% of faculty and 90% of students favored the introduction of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84.6% of faculty and 94.7% of students reported that they would apply for the program accreditation and 73.1% of faculty and 77.6% of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would trust the result and process of the accreditation. On the question of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standardized curricula, 100% of faculty and 99.4% of students responded that it was necessary. The top 5 areas to be included in the accreditation were the faculty's major, the contents of curricula, clinical experience of the faculty, variety of courses, and assessment tools in order among faculty and the contents of curricula, clinical experience of the faculty, variety of courses, the faculty's major, and practice equipment in order among students.

Conclusion : The results show that the majority of occupational therapy faculty and students agreed on developing a minimum standard for education programs that could be ensured by the accreditation procedur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in Korea.

Key Words : Accreditation, Curricula, Education program